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7)

총애송특

寵愛崇特



총애하는 것이 높고 특별하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권력이란 무엇일까? 글자로 풀이한다면 권(權)이란 저울이란 뜻이 있으므로 힘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저울추를 공정하게 무게에 따라 제대로 옮겨 놓으면 공평하게 되지만, 저울질하는 사람이 그 저울대의 평형과 상관없이 저울추를 멋대로 옮겨 놓는다면 공정하게 무게가 재어지지 않는다.

권력을 쥔 사람은 그 저울추를 옮길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기화로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이란 저울추를 멋대로 옮겨 가면서 물건의 무게를 자기 마음대로 재는 짓거리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 자기 멋대로 저울추를 옮기며 무게를 틀리게 재고서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권력자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용하여 꾀도 안 되는 사람을 후계자를 세우려고 특별히 총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사실 권력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바라는 것에 비하여 보면 너무 짧다. 역사에서 6국을 통일하고 과거 성군(聖君)으로 불리던 삼황(三皇)과 오제(五帝)를 합친 것과 같은 업적과 권력을 가졌다는 뜻으로 황제라는 단어를 만들어 스스로 사용하였던始皇제(始皇帝)의 경우를 보자. 영원할 것 같던 그도 황제가 된 1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무한할 것 같은 권력이었지만 인명(人命)의 유한성(有限性)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사실 일찌감치 인명의 유한성을 알고 그 뒤를 이을 후계자를 잘 세웠더라면 그 엄청난 공적도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었으련만 어리석게도 후계자를 제대로 선정해 두지 못한 까닭에 끝내 그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니 그의 업적은 모두 독재를 위한 조치로 폄하되고 결국 후세에 천하의 독재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권력을 쥔다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을 모르고 오히려 권력이란 좋은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이 허상을 차지하려는 권력 싸움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원말(元末)에도 있었다. 원말 순제(順帝) 때에 중서 좌승상인 박이제포합(博爾濟布哈, ?~1350)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탁극탁(托克托, 脫脫, 1314~1355)을 밀어내어 해치려고 우승상(右丞相)인 아로도(阿 圖)에게 탁극탁을 밀어 내어 해치자고 모의하였다. 이때 아로도노는 이를 거절하며 “우리들이 어찌 오래도록 재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역시 퇴휴(退休)하는 날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장차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로도노는 물러날 날이 있을 것을 안 것이다. 아로도노는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한 사람이다.

그런데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개인에게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가 맡은 집단이나 단체 나아가서 국가의 경우도 진(秦)나라처럼 불행해진다. 그러니 단체나 국가의 책임을 진 사람은 마땅히 단체나 국가가 생명력을 유지 계승할 만큼의 후계구도를 잘 잡아 두어야 하지만 역사상 어느 국가나 집단, 단체도 영원하지 못한데 대체로 후계구도의 잘 못된 설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를 안다면 국가나 집단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성 있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무리한 짓거리를 하지 않은 터인데 어리석게도 역사를 읽어 보면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인다.

그 예를 하나 보자. 삼국시대에 오(吳)를 건국한 손권(孫權)은 당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후한 말 혼란한 시대의 영웅으로 불린 조조, 유비와 겨루며 강남지역을 차지하면서 삼각형 구도 속의 한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그가 나이 60이 되면서 자기 뒤를 이어 그의 오(吳)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줄 후계자를 선정해야 했다.

원래 손권은 아들 손등(孫登)을 태자로 삼았었지만 그가 일찍 죽었다. 그래서 다시 후계자를 뽑아야 했는데 손권은 신중을 기하려고 했는지 8개월에 걸친 장고(長考) 끝에 순화(孫和)를 태자로 세웠다. 그렇다면 순화에게 무게를 실어 주어 오를 이끌고 갈 힘을 길러 주어야 했지만 손권은 다시 아들 손패(孫霸)를 노왕(魯王)으로 삼았다.

사실 손권은 그동안 왕작(王爵)을 주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대(漢代)에 많은 사람에게 왕작(王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오나라에서는 그러한 분란이 없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평소의 소신과 달리 손패에게 왕작을 주고 태자인 순화와 노왕인 손패를 한 궁궐에 살게 하고 대우도 똑같이 했다.

이 상황을 염려한 노왕 손패의 사부(師傅)인 시의(是儀)가 ‘두 사람 사이에 차별

이 분명해야 하고, 노왕은 변병(藩屏)의 역할을 맡기라.’고 하였다. 두 사람 간의 질서를 분명히 정해주라는 말이었지만 손권을 듣지 않았다. 어쩌면 손패를 더 아꼈는지 자치통감에서는 총애송특(寵愛崇特)라고 표현하였다. 즉 손패를 총애하는 것이 높고 특별하다는 말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순화를 태자로 정하고 7개월 동안 순화가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 혹 태자를 손패로 바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손권의 조치 하나로 오나라의 황실과 고관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다음의 권력자가 되려는 이 싸움은 건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모함과 비난이 난무하고 이 때문에 귀양 가고 죽는 신하들이 생겨났다.

이 보고를 들은 손권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까? 태자와 노왕의 갈등을 해결하여야 했지만, 이번에는 또 잘못 없는 태자 순화를 태자에서 폐위시키고, 노왕 손패를 사사(賜死)했다. 옳은 쪽에 손을주는 대신 양비론적 조치를 취하니, 원칙 있는 판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엉뚱하게도 손권은 다시 10살도 안 되는 막내 손량(孫亮)을 태자로 결정하였으니 저울추를 잘 못 놓은 것이고 이 때문에 오나라는 건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각설하고,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통치자가 저울추를 제대로 놓으면서 후계구도를 제대로 설정했던 경우가 있었나 싶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공식적으로 후계구도를 잡으면 자기의 권력이 약화될 것을 걱정해서인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서 확실히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여 후계구도를 만들기 보다는 후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 대체로 맹목적 복종형인 사람을 특별하게 총애하는 경우는 많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항상 분란이 끊이지 않았고 후과도 좋을 수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의 관계는 비극으로 마무리 되었고 박정희대통령과 김재규의 관계도 비극으로 끝났다. 같이 안 되는 사람을 총애송특(寵愛崇特)해서가 아닐까? 지금은 어떻게? 이처럼 역사적 경험이 분명한데권력자는 여전히 꾀이 안 되지만 권력만 좋아하며 아무하는 사람을 총애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논리정연(論理井然)

논할 논. 다스릴 리. 우물 정. 그릴 연.
말이나 글이 짜임새가 있고 조리가 있다는 의미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

능할 능. 글서. 아니 불. 가릴 택. 붓 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경지에 오른 사람은 도구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유래: 당나라 때 서도의 대가 저수량은 평소 좋은 붓과 먹이 없으면 글씨를 쓰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수량이 서도의 대가 우세남에게 “내 글씨와 구양순의 글씨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가?” 하고 물었다. 이에 우세남은 “순은 종이와 붓에 대해 전혀 말이 없고 아무 종이애나 글을 썼다. 어떤 붓으로도 마음 먹은 대로 쓸 수 있었다. 그대는 아직도 종이와 붓에 구애 받고 있으니 순을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능소능대(能小能大)

능할 능. 작을 소. 큰 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능숙하게 잘 해내는 능력을 의미함.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유래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음.

다기망양(多岐亡羊)

많을 다. 갈림길 기. 잃을 망. 양 양.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열자(列子) 설부(雪符)에 나오는 말이다.
-방식이 많아서 도리어 갈 바를 모름
-유의어: 망양지탄(亡羊之歎), 기로망양(岐路亡羊)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을 다. 더할 익. 착할 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유래: 중국 한나라 시대에 유방과 한신의 대화에서 장수가 병사를 거느리는 능력에 대해 말하다가 유방이 한신에게 “너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나?”라고 묻자 한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고, 유방은 “그런데 너는 왜 나의 부하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한신은 “폐하가 병사를 잘 못 거느리지만 장수를 잘 거느리시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원래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자원, 인력, 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단기지계(斷機之戒)

끊을 단. 베를 기. 갈 지. 꺾할 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유래: 맹자가 학문을 닦는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베의 날을 끊으며 학문을 중도에 그만 두는 것도 이와 같다고 훈계했다. 맹자는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서울산악회 한탄강 주상절리길 산행

서울산악회(회장 권정찬) 회원 30여명은 단풍이 절정인 11월 16일 제355차 정기산행으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을 산행했다.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한 일명 원정산행이다.

아침 8시에 1차 집결지 양재역에서 8명이 탑승하고, 08:40분 2차 집결지 도봉산역에서 24명이 합류하여 총 32명이 산행지로 출발했다.

회원들은 버스 안에서 아침식사로 준비한 김밥과 홍어무침 그리고 코다리무침, 과일 등을 먹으며 답소를 나눴다. 10:10분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드디어 도착했다.

철원 한탄강주상절리길은 그야말로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이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천혜의 비경을 품고 있다. 수직 절벽에



설치된 주상절리길은 출렁다리와 스카이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찔한 스릴을 맛볼 수 있다. 일행은 걸으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출렁다리의 아찔함도 느끼면서 자연을 만끽했다. 12:10분에

리버포레스트&해오름 식당에서 옛날 불고기로 식사한 후 햇불전망대에 올라 구경하고 오후 4시경 집으로 귀가했다.

권혁구 산악회 총무

2025年 11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0.30. ~ 11. 26. 총 납부자 87명 총 4,86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경주(서울 강동)	30,000	권미송(경북 경산)	30,000	권영식(서울 강북)	30,000
권국노(악산)	30,000	권병덕(인천)	30,000	권영원(서울 강남)	30,000
권규(봉화)	30,000	권병정(경기 양평)	30,000	권영운(봉화)	30,000
권기도(구미)	30,000	권병채(영천)	30,000	권영일(단양)	30,000
권기복(대구)	30,000	권병환(삼척)	30,000	권영준(음성)	30,000
권기철(안동)	30,000	권사현(김해)	150,000	권영철(성주)	30,000
권기웅(대구)	30,000	권상호(제천)	30,000	권영현(김해)	30,000
권기주(안동)	30,000	권성갑(순천)	30,000	권영호(부산 연제구)	30,000
권기준(강릉)	30,000	권수기(대구)	30,000	권영호(의정부)	30,000
권기태(서울 노원)	30,000	권수동(예천)	30,000	권오상(고령)	30,000
권기태(포항)	30,000	권수웅(진주)	30,000	권오상(서울 마포)	30,000
권대일(대구)	30,000	권순배(문경)	30,000	권오석(경기 파주)	30,000
권도혁(대구)	30,000	권순배(세종)	30,000	권오선(경산)	30,000
권동식(남양주)	30,000	권순일(상주)	30,000	권오수(부산)	200,000
권동현(서울 강동)	30,000	권연형(경주)	30,000	권오수(서울 구로)	30,000
권만봉(경기 광주)	30,000	권영두(의령)	30,000	권오주(서울 강남)	30,000
권만섭(광양)	30,000	권영복(성주)	30,000	권오중(남양주)	30,000
권만조(부산)	30,000	권영식(상주)	30,000	권오창(서울 종로)	30,000

* 연간 총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친애하는 100만 죽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태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마시고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공중화회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안동권씨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